

■ 수능 성적 첫 공개 파장

# 교과부 “선익의 경쟁 긍정 효과” 전교조 “서열화·입시경쟁 심화”

## 평준화 체제 근간 흔들릴 우려도

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이번 성적 공개로 선익의 경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 강력 반발 =전교조 광주지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열려라던 관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열린 상자 속에 있는 서열화와 무한경쟁, 평준화 해체 및 3불 폐지가 그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이번 성적 공개를 통해 자칫 무분별한 서열 비교로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절차와 한계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찬·반 논란은 현재 진행형 =교육당국은 이날 공개된 자료가 수능 성적 원자료 전체가 아닌 일부이고 공개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성적공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개별 학교명과 성명 등의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개별 학교명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며 학교별, 지역별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평균도 나와있지 않다.

대신 지역별 최근 5년치 수능 1~9등급 학생 비율이 영역별로 나와있는데, 이 역시 1~9등급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묶어 사실상 3개 등급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 성적 차 현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에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교육계가 우려해왔던 학교·지역 간 서열화 논란도 불보듯 뻔할 것이라 지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학교의 성적은 해당 지역 교육감은 물론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학교장의 평판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학교 간 성적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국가지원금 부당수령 의심 54명 늘어

### 영산강환경청, 957명으로 최종 집계

전남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늘어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성군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정부의 주민 지원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957명으로 최종 집계돼, 잠정 집계치 903명보다 54명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총 9억7천여 만원으로, 1명당 100만원꼴이다. 현재까지 부당 수령자로 밝혀진 사람은 300명에 이른다.

이 사태가 불거진 뒤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51명을 포함해 227명이 지원금 부당 수령을 인정했으며, 10일 마감한 자진 신고 기간에 부당 수령 사실을 추가로 털어놓은 사람이 60여

명이라고 영산강환경청은 전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 이후에도 일부 시·군에서 자진 신고자가 추가로 파악돼 총 인원은 300명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강환경청과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광주지검은 나머지 지원금 수령자 600여명 가운데 상당수도 부당 수령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한강 유역 1천800만원, 낙동강 유역 2천300만원, 금강 유역 300만원 등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영산강 유역에서는 이들 지역 지원금 합계의 2배를 넘는 10억원 가량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전체 지원금 수령자와 부당 수령 자진신고자 현황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하겠

다”며 “자진 신고자는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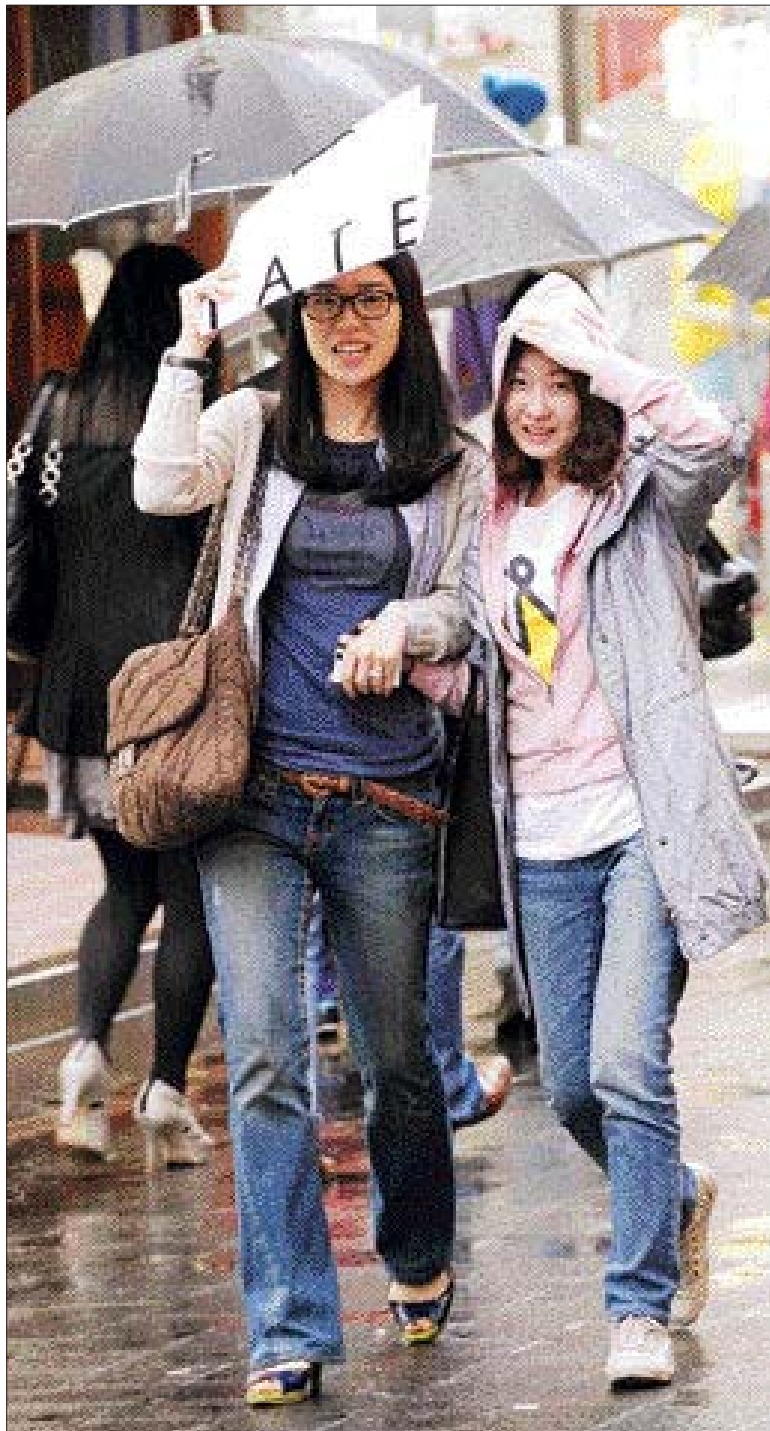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양 미동·영암 삼호

#### 최우수 정수장 선정

환경부는 15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 광양 미동, 영암 삼호 등 전국 5개 정수장을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하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27개소의 정수장 중 1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영암군 삼호 정수장은 97.99점을, 광양시 미동 정수장은 97.39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정수장은 수질 및 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모처럼 단비...즐거운 女心 15일 단비가 내린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걷는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5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문학과 봄’ 광주지하철 역사 새단장

### 송정공원에 문학관

광주 지하철 역사가 ‘문학과 봄’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테마로 혹은 미술품·수석·꽃나무 등의 전시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지하철’로 자리잡은 지하철역에 이번에는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문학관이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6일 오후 2시 광산구 송정공원에 (사)광주광역시 문인협회와 함께 ‘광주지하철 문학관’을 열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문학관에는 이수복 시인 등 지역 출신 문인들을 기념하는 홍보부스와 함께 지역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시민이 참여하는 시낭송회 공간 등이 마련돼 ‘시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주선한다.

이와 함께 광산구 도산역에서는 열대어와 우리나라 야생화를 전시하는 ‘도루메 봄꽃축제 및 열대어 전시회’, 공항역에는 중국은나라 시대 동물뼈 화폐 등 진귀한 화폐를 전시하는 ‘이동 화폐박물관’이 열리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9분 해질 19시 06분 달돋이 00시 40분 달질 10시 20분

**봄바람 살랑**  
대체로 맑겠으나 지역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9/21°C
목포	흐린 뒤 맑음	8/16°C
여수	구름 조금	11/16°C
완도	흐린 뒤 맑음	10/18°C
구례	맑은 뒤 흐림	8/20°C
해남	흐린 뒤 맑음	9/18°C
장흥	흐린 뒤 맑음	9/19°C
고흥	구름 많음	9/19°C
순천	맑은 뒤 흐림	11/19°C
영광	구름 조금	7/15°C
진도	흐린 뒤 맑음	10/18°C
진주	구름 조금	6/19°C
남원	구름 조금	6/20°C
속산도	흐린 뒤 맑음	7/13°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서	0.5~1.5m	목포 06:08	11:31
연안	북~북서	1.0~2.0m	17:48	23:0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서	0.5~1.5m	여수 00:36	06:58
연안	북서~북서	1.0~2.0m	12:22	18:3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7/23	10/26	11/27	13/19	12/17	9/21

## 흰이마알락할미새 홍도서 첫 발견

### 국내 미기록 희귀종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는 국내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흰이마알락할미새가 지난 7일 신안군 홍도에서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흰이마알락할미새

흰이마알락할미새(Masked White Wagtail·학명 Motacilla alba personata)는 시베리아와 아시아 서부, 이란, 인도 북부에 분포하며, 여름 철새로 흔히 우리나라를 찾는 알락할미새와 비슷하지만 다른 종이다.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홍도와 흑산도 사이를 관찰한 결과, 희귀 조류인 해변종다리와 푸른바다직박구리도 확인했다. 해변종다리는 유

렵과 아시아 북부 지역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7일 충남 보령에서 관찰된 이후 두 번째 발견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보이는 푸른바다직박구리는 지금까지 4차례 관찰된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사이비기자 근절위 구성

####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박상원)는 15일 ‘사이비기자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이비 언론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비리 근절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최근 이 지역에서 사이비 기자들의 잇따른 금품수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고 사이비 언론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 지역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로 구성됐으며, 사이비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리상담 전화(062-653-8566)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또 주요 공공기관에 사이비 언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이비 기자들의 비리 유형은 ▲악성 임금체불 ▲감람 광고 수수행위 ▲광고 겸직 기자채용 ▲이권 개입 ▲민원처리대가 금품 수수 행위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THE MUSEUM 50TH ANNIVERSARY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  
**傳說**  
2009년 4월 25일(토) 오후 3시, 6시  
죽도시민문화체육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죽도읍 죽도리 1-1  
문의: 020-6641-1508-0766